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수문에서의 부흥 [느헤미야 8:1-8]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때때로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회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교회로 되돌아가길 원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도구일 뿐 아니라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우리는 느헤미야 7장의 마지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을 안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달에 첫 번째 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팔축제에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벽재건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일들을 하는 대신 예루살렘에 하나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본문 1절에서 사람들이 이 예배를 계획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말씀이 설교되길 갈망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설교본문 3절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위해 참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받거나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관한 설교를 최소한 4시간 이상씩 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갈망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길 갈망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오늘 설교본문에 중요한 단어는 이해입니다. 이 단어는 2, 3, 7, 8 그리고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 낭독된 말씀을 설명하고 또한 적용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행하였고 또한 13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교의 목적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거나 우리가 들은 것을 좋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는데 있습니다. 이 이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봅니다: 잘 듣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왕 되신 분의 말씀이며 그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존경을 표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오른손을 들고 '아멘'이라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찬양 부를 때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우리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분은 성경의 모든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분을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분을 만날 때 그 분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갈망은 더해지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흥하고, 새롭게 되며 또한 회복됩니다.